

유네스코 만찬 인사말

신사 숙녀 여러분

"생명과 평화를 위한 공양" 만찬 행사에 참석해주신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과 세계 각국의 모든 유네스코 대사님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통역)

저는 유네스코 현장 전문에서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법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이 문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일체유심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정신과 세계 불교도들이 실천하는 가치는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도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통역)

너와 나를 가르는分別심을 넘어서고, 전 우주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때 참나가 살아나고, 세상은 다양한 존재의 존귀함으로 가득해집니다. 이름 없는 작은 꽃들이 모여 꽃동산을 이루듯이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세계는 평화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영어 통역)

한국사찰의 많은 스님들은 일상을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일이 수행입니다. 그 중 먹는 일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집착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영어 통역)

불교의 가치관으로는 먹는다는 것을 '공양'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이 말은 맛과 모양에만 집착하지 않고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섭취하는 것,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무수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이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나아가 그 음식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모든 이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한국불교에서 먹는 행위는 생명의 존중과 평화의 지향을 의미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매일 세 번 세상을 바꾸는 빈그릇 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그릇 운동은 잔반을 줄여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존중과 사회경제 정의에 대한 헌신 등 유네스코의 새천년발전목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영어 통역)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만찬의 시간이, 나를 비롯한 이웃과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가슴 속에 새기고 더불어 함께 행복함을 기원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한 공양'의 시간으로 소중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대사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통역)

2011년 9월 30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